

聖句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
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경
이 말할수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구하시니라 로마8:16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人 吳 允 台
主 筆 田 榮 澤

63.11.28
圖書館

進展되는教會一致運動

오는 八月 美國 에반스톤에서 열릴 제二回 世界教會會議을 앞두고 世界各國의 教會는 차차 教會一致의 方向으로 進展되고 있다. 世界教會一致運動(에큐메니즘)의 最終의 目標은 구교 카톨릭과도 合同하도록 함에 있는데, 이 운동에는 新 敎의 모든 敎派와 希臘正敎의 一部도 參加되어 있으며, 今年를 계기로 하여 全宗 운동이 활발히 展開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번 美國에서는 루터교회 회의 四敎派의 合同을 보았으며, 佛蘭西의 改革派敎會에서는 합동 기도주간에 카톨릭과의 合同도 期待한다는 聲明을發表, 이運動에 박차를 加한 烈을추었다.

뉴질랜드 長·監·會衆三派合同

明年에 合同大會

뉴질랜드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組合敎會)三派는 近時부터 合同을 推進中이던바 三派의 合同에 관한 案이 各 派總會에서 承認된 셈이므로 明年에는 合同大會를 열기로 되었다 한다. 그런데 一九五三年度 長老會總會에서 承認된 三派合同促進案은 다음과 같다.

(1) 洗禮식은 共通證明書採用 및 合同禮拜, 交際, 研究會等의 開催. (2) 敎會合同의 構想을 研究하는 모임 또는 親睦會 爲한 祈禱會開催. (3) 장로회總會, 감리교年會, 會衆敎會大會를 同時同處에서 開催하고 이어 證明採用, 合同禮拜等敎程의 發起. (4) 長 監敎會 靈的復興十字軍의 二 運動의 協力促進. (5) 合同에 對한 希望과 熱誠을 보기

카톨릭과의合同도可能케

合同週間에佛改革派敎會聲明

佛蘭西의 改革派敎會에서는 지난번 敎會合同週間에 다음과 같은 聲明을發表하였다. 「佛蘭西의 푸로테스탄트敎會는 過去九十六年間 그리스도敎會의 合同을 祈禱해 왔었다.

이제 우리는 世界福音同盟의 要望에 報答하여 敎會合同을 위한 祈禱週間에 있어서 카톨릭과의 合同도 可能케 할 수있는 指導에 期待하는 바이다.」

社說 本報의內容과編輯方針에關한問題

社長 吳 允 台

우리 在日基督敎總會가 비록 小規模의 敎會團體지만 「福音新聞」이란 代辦機關을 가지고 우리 敎友兄弟姊妹는 勿論이오 一般 우리 僑胞의 벗이되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重大한 使命을 가지고 계속 刊行되니 이미 三箇年에 敎會와 内外人士의 認識이 날로 깊어 가고 愛讀者가 점점 늘어가는 것은 感謝함을 마지 않는바이다. 그런데 本報의 어찌 記事內容과 編輯方針에 대하여 별 서부터 讀者間에 特히 우리 同役者間에 또 總會側에서 問題가 되어오던바 지난 百十號

에 記載된 피시어博士의 「福音新聞의 編輯方針에關하여」라는 글이 讀者間에 커다란 波紋을 일으킨것은 勿論이오 本人을 비롯하여本社當事者間에도 또한 적지아니한 問題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内部의 問題로 處理하지 못하고 문저 그것이 紙上에 發表되어 여러 分에게 疑惑을 주게된것은 當 時 主筆도 歸國 不在中이었기 때문이다. 本人의 責任이 큰것이오 따라서 죄송한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제 몇말씀 간단히 기록하여 여러분의 의혹을 풀고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바이다.

피시어博士는 본시 韓國宣敎師로 現在 日本에 在留中 韓國과 우리僑胞를 사랑하는 誠意가 두터운 분이오 本報를 우리와 같이 協議하여 創設하였고 그 本國에서 資金을 얻어 經濟的責任을 저주는 고마운 분이다.

그리고 처음에 本報를 創刊할 때에 첫째로 福音을 傳할 것 다음에 民主主義를 解明 宣傳할것, 大韓民國과 UN을 支持할것의 三大綱領을 가지고出發한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피시어博士와 慎重한 協議와 圓滿한 妥協으로 된것이였다. 그런데 이번의 博士가 發表한 글은 本報의 性格에 關係되는바가 있다고 보아서 지난 六日 本社理事會에서 充分한 談話와 討議가 있었다.

첫째 本社의 資金出處로 「日本에 있는 親韓美基督敎信者그룹」이라는것은 「日本」이 아니라 「美國」을 번역한이의 실수로 그리된것이라고 博士는 말하였고 다음에 本社의 方針에 對하여 첫째의條件 基督敎宣傳과 敎會支持의 重要性은 勿論이오 둘째 以下の 조건에 대하여는 民主主義와 大韓民國 및 UN을 支持하는 以上, 民主主義와 極端으로 反對되고 現今民主主義諸國家와(곧 UN과 大韓民國)과 正面으로 對立하여 싸우고 있는 現實에 있어서 그리고 基督敎와 民主主義의 立場에서

合同折讓通聞은 一九〇七年에
美國教會의 와트슨, 스미스, 두
牧師가 一月에 合同을 爲하여
折讓하는 通聞을 定한 것이
最初인데, 이것은 로마교회
의 사에 依하면, 敎皇의 祭典과
聖母의 祭典의 中間이 되며
一九〇九年에는 法皇 符士十世
도 이 企圖에 祝福을 하였다
이리하여 一九三七年에는 卡
의 合同通聞과 아울러 合同
의 世界的折讓通聞으로 지키기
로 하여 世界教會協議會(W.C.
(一) 數年前부터 이 通聞을
지키 것을 獎勵하였다. 佛蘭
의 후로테스투스敎會가 이러한
敎會合同의 立場을 取한 것은
宗敎改革의 基本的原理에 忠實
함과 同時に 拜物敎의 兄弟와
信仰으로써 서로 結合 互
助를 加할 수 있다고 믿기

美感 아름다운 그 마음

主筆

나는 지난번에 본국에 가서 선친이오 서울 모교회학교인
아직 재건과 부흥이 잘 안되고 고등학교 학생으로 교인의 자
에서 생활면에는 담담한 일을 제인들을 알았다.
많은 보았으나 한편으로 벅
고마운 현상을 보았다.
부산에서 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이등에도 북창에서 어
여리미를 더리고 가는 부
인이 서서 가게 되었다.
이것을 본 어떤 여학생이 자
기의 자리를 내주고 자기는
서울까지 줄것 서서 가는 것
이다. 나는 하루 기록해서 말
을 부쳐서 이것저것 물어본
결과 그 학생은 고향이 평북
때문이다. (파리發 P.S. 基通)

심정과 태도가 그렇다면 비록
우리나라에 집이 없고 먹을 것
이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할지
라도 그까짓것은 문제가 아니
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광명
이 있다고 나는 늘 즐겨 논
점을 금치 못했다.
그 자리를 양보하던 학생을
이 기록한 인자 모르거나와
젊은 학생들의 정신이 그렇게
되면 나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예수의 선구자 세례요한이
「그는 용하여야 되었고 나는
침하여야 되었다」 한 말씀이
곧 예수의 정신이요 오늘날
현사회가 바로되고 위기에 처
한 세계 인류가 경생할 원리라
고 할수 있다.

美國의 改衆合同軌道에

— 合同反對紛爭提訴 — 控訴院서棄却

미국의 會衆敎會(組合敎會)을 계속해 온 것이었다. 이번
改衆敎會(에반제리갈, 리
폼)과의 合同計劃에 對하여
블록클린의 카드만紀念敎會가
改衆敎會合同計劃을 反對하
고, 「兩敎會合同案은 會衆敎會
의 利益과 財產權을 侵害하는
것이다.」는 이유로 訴訟를
提起한 것인데, 블록클린裁判所
에서는 合同案에不當의 判決
을 내려 一九四九年以來 紛爭

의 前判決을 棄却하여 버렸다
그 이유는 同提訴가 憲法上
何等關係되는點을 內包하지 않는
것이며 兩派의 委員들은 具
體的인 協議를 하여 兩派合同
은 軌道에 오를 것이라고 한다.
美國의 四루터
敎會合同決定
미국의 루터교 회교 八개合同
問題는 지난번 시카고에서 열
린 合同委員會에서 다음의 四
(뉴욕發 P.S. 基通)

世界YMCA同盟百年祭

明年 파리에서 開催

보아서 共產主義者들이 하는
모든 罪惡의 行動을 默過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事實을 그
대로 알려서 一般에게 認識시
킨다는 것은 設立當時의 本報의
綱領을 詳細히 說明하고 들어
나는 것이요 違反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傳道局主催 西南地方大傳道會

四月九日—廿一日까지

이제 博士는 本報가 福音으
로 僑胞를 인도하는 效果를
더욱 認識하고 우리는 基督敎
의 立場에서 共產主義와 그 行
動을 批評하는 것이 當然한 것을
認識하게 되었다. 그러면 本報
는 처음의 綱領으로나 아갈 것이
없다. 本報의 性格에 變함이 없
으니 同投者와 一般讀者는 深誠
하시고 앞으로 一層 本報를
愛護하심을 바라 바이다.

美國敎會團體가 今年 海外에 救濟品보낼計劃

미국 개신교회와 동부 정통
파 교회는 금년중에 전세계
각처의 공중자를 위하여 중량
으로二千七百萬 파운드(의 식
량, 의료, 비타민 약제와 그밖
에 필수품을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세계봉사회 이
사원 페아필드 박사는 우
구제물자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말했다. 교회 세계
봉사회는 미국 각교파가 합동
한 기관인데 이를 통하여 미
국의三十六 개교파가 전세계에
미치는 구제와 부흥사업에 협
력하기예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 一千四百萬 파운드를
한국을 비롯하여 근동, 그타
아세아 각지역에 보내고 一千
三百萬 파운드를 구파과 각국
에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구제품을 아
세아와 구파에 보내는 계획
을 실행하기 위하여 八百만 불
이 필요할 이 금액의 대부분
은 三月二十八日 전 미국의
각교파의 교회가 정기 구제기
금보전 행사를 할때에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高峯聖經學校開校

在日大韓基督教敎會에서 經營
하던 在日大韓高等聖經學校는
去年 總會에서 休校하기로 한
以來 休校中에 있었지만, 今
年四月一日부터는 再開하기로
하였다 한다.

우선 단기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장소는 大阪西成敎會堂으
로 決定하였으니 단기과 一期
開은 大連開으로 한다고 한다



望臺聲

이번에
세종대
선수권대
회 극동
예선에
일본팀과
우리 한
국팀이 對전하게 되어 지난
七日에 五대一로 패승을 하고
十四日에 두번째 시합에 다시
對전하여 역시 慘敗 결과 二
대二로 비겼으나 一회의 우승
으로 결국 우리 팀이 득승하
고 예선에 입선되고 대회에
출장권을 얻었다. 「어려 선수
들 수고 많이 했소 고맙소」
하고 충심으로 치하한다.
○명치신공에서 일본경찰대 주
악으로 우리 국가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게양했다는 것은 지
난 일을 생각하면 과연 놀라
운 일이었다. 그때에 참석한
자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
람이 있으라 그런데 태극기가
올라갈때에 일본사람까지도 일
어났는데 우리 민족으로 모른
체 한 사람들이 있다. 기막
히는 일이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일
본팀도 훈련이 잘 되고 서로
연락을 잘 한다는 것은 사실이
다. 우리 팀은 기운도 없고
기술은 용하나 훈련이 부족한
듯하다 절대로 필요한 「팀웍」
이 부족한 것은 유감이다. 이것
이 우리 사람의 결점인가.
○이강득이 선수가 되어 늘
가도를 뚫는 것은 고마운 일
이다. 물론 어디 가든지 하나
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격
으로 「스토크스」로 이겨서
조국을 빛내주길 바라오.

英國人の耐乏生活と社會保障

Y 主 催 文化使節團 韓國分會

작년에도 당시 공보처장 이 철원씨와 이대총장 김활란씨와 몇분이 문화사절단으로 영국에 다녀온 일이 있거니와 이번에도 다시 동아일보사장 최두선씨 서울신문사 편집국장 고재경씨 의 김태진, 모윤숙, 제씨가 영국의 정부를 초청을 받아서 한국 개월동안 영국을 시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난 三月十一日에 동경에 잠시 머물렀는데 재일 한국 Y.M.O.A에서는 지난



사진은 영국에 다녀온 문화사절단 환영회

첫째 영국은 두번째 대전을 겪었지마는 그만큼 견디어 오는 까닭은 그네들이 지위있는 사람이거나 일반 민중이나 꼭 같이 절대 생활을 하는것이 첫째 원인이라고 할수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세계에 살아가는것 같지마는 그런 것이 아닌것을 보았다. 물론 지금은 생활필수품의 생산이 잘되지마는 그것은 외국에 내보내려고 자기네는 부족한

것을 참아 가며 살아 갑니다. 일류호텔에도 고기나 계란을 매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치운 때에도 수면이 없이 이 전에 우리가 일본서 학생시대 에 쓰던 유당보통 주어서 지 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불평 이 없는것이 그네들의 교양이 그만큼 된것을 알수 있었다. 다음에는「사회보장」이 훌륭 하게 된것을 보았다. 어떤데는

東京教會建築에 盡力한

孔偉亮 牧師歸國

韓國에 宣教師로 가 있던 孔偉亮(원리암)씨(博士)는 지난 五日午後二時 橫濱出帆의 冥誕號로 四十年에 걸친 그의 宣教師奉仕를 끝마치고 歸國하였다.

博士는 四十餘年前에 韓國에 宣教師로 赴任하여 주로 韓國에 있던 日本人을 위하여 傳道하였으되, 大戰中 一次 歸國하였다가 戰後 다시 日本에 와서 前 G.H.Q.의 民間情報局(C.I.E.)의 宗教顧問으로 活躍하다가 任務를 마치고 歸國하였는데, 특히 在日韓國基督教東京教會建築基金募集에는 間接的

福音新聞編輯方針에 關한

「피시어博士의 意見」을 읽고

俞錫濬

나는 所謂福音新聞社의 專務 命이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任務로써 本紙의 發展을 위하여 할 것이며, 어떠한 길로 나아가느냐에 우리가 問題視한 것이다. 博士의 말에 依하면 다섯 가지 基本條件附로 新聞을 始作하였고 資金을 提供하였으며, 이대로 默認할 수는 없는 事實이므로 몇가지를 指摘하려고 한다. 이 新聞의 發는 그만한 것을 決定한 일도 우리 사이에 相距가 아주 멀고 틀리는 것을 發見하고 다 음 몇가지를 指摘하려고 한다. 在日大韓基督教會가 經營하는 福音新聞이라는 題號로 新聞을 순한 福音運動을 援助하는 個 發行하는 本質과 그 任務, 使

은 映面에 나타난 精神이 是 수교회의 精神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在日僑胞特히 共產主義에 물든 同胞들에게 福音을 올바르게 傳하고 그를 暗穴에서 救出하려면 福音, 光明한 예수교회의 빛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 博士는 共產主義者의 細胞組織이 強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그렇다 고 해서 正面攻撃과 어떠한 宣傳의 新聞으로 그것을 막 아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일이 本紙의 任務도 아니다. 一般社會新聞이라면 惡을 惡으로 對抗하려니와 우리 教會新聞으로서의 效果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認識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博士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普及시키고 上昇시킬 것을 強調했다. 우리는 勿論民

爲 하여 진력하심을 感謝
하며, 우리가 地上에서 再會
할 날이 있을는지 모른다
天國에서 再會할 때까지 韓
國을 爲 하여 祈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라는 意味의 送別辭로 많은
感銘을 주었다 한다.

戰後韓國教會復興事業과

美軍兵士의 獻身的奉仕

이하는 대구에 주재하는 장로
회선교부 아담스 목사가 미국
주간지 "크리스찬 선주리"지에
기신한 동란후 한국교회에 재
건에 미군 병사들이 성심으로
돌고있는 현상을 말한 기서를
번역 전제한다.

동란 삼년에 여러차례 처일
한 전란을 겪은 서울시의 의
정부(議政府)에는 새 건물
들이 우뚝 섰는데 하나는 감
리교회이며 또 하나는 카톨릭
교회이며 한국기독교회를 두개
로써 흐트러진 학교아동들을 모
아가고 수업을 하고 있으며
모든 재료 및 원조는미제
八군 제一군단병사들이 약七만
七천을 세계교회부흥 한국
제一선지역 순경대장 류이벤
에이 토리 氏에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일이다. 감리교회 현당식은 동
교회감독인 柳炯기 박사의 사
약二十五만불에 달한다고 하며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一八三개의 부흥선교사업이 진
행중이라고 하며, 二十개의 고
아원, 十一개의 병원, 八개의
교회, 그리고 수개의 학교건물
및 공공건물위생소를 설립중에
있다. 또한 이외에도 교회관계
기관을 통하여 대량의 의류,
및 식량이 병사들로부터 공급
되고 있다. 또한 제五공군에서
도 학교기관설치, 및 교회설립
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 세무관(세무청)에
서 부당한 불구자들을 수용하
여 의족과 의수를 만들어 주
며 불구한 몸을 보충해주고
교육도 하고있는데 약四十여명
을 수용할수 있는 건물도 호
아드 러스크박사와 당시 제八
군사령관 벤올리드장군의 노
력으로 설립한 한미재단의 기
부로서 신축하게 되었다.

자녀 부산에 대화재로써 약
삼만四千여명이 집을 잃고 방
황하고 있었으나 이들에게도
따뜻한 원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군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천
막과 帳막크를 지어주고 유엔
민사처에서는 의무반이 출동하
여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또한 두곳 불탄 회회를 임시
천막을 제공하여 예배를 보게
하였다. 또한 이 대화재로 인
한 이재민들은 부산의 각 교
회들과 세계교회 분사단의 힘
으로 원조를 받고있는 것이다
(크리스찬 선주리 所載)

그리고 博士는 讀者中 몇가
지 疑問을 가지는 것은 共產
主義를 理解 못한 분이나, 利敵
行爲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너무 過한
말이다. 共產主義가 무엇이며,
共產黨들의 行爲를 體驗한 것
은 韓國人以上 世界에 그 類
가 없을 것이다. 共產主義와
基督敎가 妥協한다든지 利用된
다든지 할만한 處地에 있는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主主義를 反對하는 것도 아니
고, 共產主義보다 나쁘다는 것
이 아니다. 全世界의 國家가
民主主義의 長點그대로 그 理
念의 좋은點 그대로 지키어
나가기를 願하며, 平和를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現今美
소 兩陣營이 一方은 所謂民主
主義를 標榜하고 一方은 共產
主義를 標榜하여 國際的紛爭이
벌어져 있는 今日 美國의 民
主主義를 宣傳強調하는 것은
冷戰에 加担하는 일이고, 예수
교의 나팔 김이 아니다. 民主
主義라는 語意의 解釋과 그
範圍에도 問題가 있겠지만 적
어도 資金을 提供하는 者가
그런 意圖로 提供했다 해서
宣傳해야 할 「民主主義」는 教會
에 屬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교는 政治나 主義를 超越한
것이다. 世界가 政治的으로 對

카나다軍人이

永樂教會에서受洗

서울長老永樂教會牧師 韓景
戰博士는 韓國戰亂에 參戰한
十九名의 카나다軍人에게 洗禮
를 베풀고 동시에 正式教會員
을 삼았다. 이들 本國에 있
는 牧籍도 이미 韓博士史從軍
牧師후레이자氏에 依하여 移籍
手續이 끝났다.
今數 約四十名의 카나다軍人
이 洗禮問答과 요리문답 공부
를 마치고 十九名이 永樂教會
에 十名이 서울에 있는 차드
원牧師에나와카나다에 있는 英
國教會에 入籍하게 되었다.

總會公告

創立十周年

紀念大傳道會西南地方

(講員: 金禹鉉, 朴命俊, 南保羅, 牧師, 金錫潑長老)
(其他: 音樂, 映画, 演說者)

天	日	月	時	牧師
九	日	金	時	朴命俊牧師(映画)
十	日	土	時	"
十	日	土	時	金禹鉉牧師
十一	日	日	時	"
十一	日	日	時	"
十二	日	月	時	朴命俊牧師(映画)
十二	日	月	時	金禹鉉牧師
十三	日	月	時	"
十三	日	月	時	朴命俊牧師(映画)
十四	日	水	時	金禹鉉牧師(映画)
十四	日	水	時	"
十五	日	木	時	朴命俊牧師
十五	日	木	時	"
十六	日	金	時	金禹鉉牧師(映画)
十六	日	金	時	"
十七	日	土	時	金禹鉉牧師(映画)
十八	日	日	時	禮拜
十八	日	日	時	"
十九	日	月	時	金禹鉉牧師(映画)
廿	日	火	時	金禹鉉牧師(映画)
廿	日	火	時	"
廿一	日	水	時	金禹鉉牧師(映画)

本總會創立 十周年紀念大傳道事業을 위한 헌금은 西南地
方 各教會에서는 四月四日(四月 첫 주일)에 헌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民族自覺과한글敎育問題 今號休載)(次號完)

용서의道

주가二三·33 號四 32

田榮澤

현대의 불안은 그 원인이 여러가지로 있겠지만 그 내 부족 원인으로 보아서 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볼수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로 세상에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여 피를 흘리는 일이 끊임 없이 계속되는 것은 과연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다. 한 집에서 형제가 서로 불목하고 갈등이 생기는데는 그 집이 망하는 장본이다. 형제끼리 마찰이 생기고 분쟁하는 것 만큼 기독교를 해치는 것은 없다. 한 집안이나 교회나 온 세계가 이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근심하시는 것은 사람끼리 원수를 지어지니 내고 하나님과 사람에도 담이 막혀서 원수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화평케

하는 것을 이치로 중히 여겼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여 땅을 막고 지내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니 만일 아니라고 본성으로서 사람이 없이 서로 원수로 지내는데는 견딜수 없이 괴로운 일이다. 구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 된것이 호세아서라고 할수있다.

나를 버리고, 내 사람을 배반하고 달아난 아들을 전제산을 털어가지고 속량해서 찾아온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견딜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땅히 사랑할 사이에 사랑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인 까닭이다.

다음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볼수있다. 배반하고 나간 아들을 아버지께는 언제나 잊지 못하고 그

아들이 자기 등에 돌아오면 배반하지 않고 집에 있던 아들을 보다가 더 반가워 하고 더 사랑한 것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로 구체화한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서로 피를 흘려서 세상을 지옥화한 만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이 막히고 원수가 된 것을 볼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므로 최후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내 놓아 희생하므로(예수 자신이 희생되므로) 인류재생과 인류평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믿는 자로 이 도리와 이 엄숙한 사실을 체득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믿는 자라고 할수없고 예수의 십자가를 헛된데 돌아갈 것이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십자가의 사실을 체득한다면 누가 감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죄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자. 첫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머리속에서는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한 독일에 학생들의 신앙을 받는 표가 있는데, 그들은, 성경 가운데는 많은 신화가 있다고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한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위대한 인물, 종교적인 천재로 믿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믿지 않으며,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모른다 하며, 현대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모두 원시적인 신앙으로 들린다. 또 저 인도의 마도라스의 힌두교도는 예수를

심판하고 저주할수 있을것이나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죽이는것이 마땅한 것을 송사할 때에 「누구든지 죄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 한사발도 감히 들을 줄지 못하고 달아난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다.

해방전 전쟁중시에 총독부에 서 교회를 구하러 탄압할 때에 나는 교회일을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에 갇힌 일이 되었다. 이때에 그것이 어떤 동역자도

本國傳道를決意한

白講道師

戰亂으로 피폐된 韓國內에서의 傳道를 覺悟하고 歸國을 決意한 牧役者가 있다.

지금 在日韓基福團教會에서 歸國의 船便을 기다리는 白南哲 講道師가 그인데, 同講道師는 五六年前 在日韓基大坂教會(大坂市東成區)에서 執事로 服務하며 社會事業에 獻身하던 中 傳道者로서 牧役에 奉任할 使命을 느끼고 神戶改革派神學校

에 入學하여 在學中에는 在日韓基 神戶教會를 訪問하여 奉仕하였는데 同校卒業後 傳道師로 在日韓基川西教會에서 牧會하다가 去年부터 在日韓基福團教會 訪問講道師로 있던 中 戰亂으로 心亂이 疲廢한 國內同胞에게 傳道를 覺悟하고 同教會를 辭任, 歸國의 機會를 기다리고 있다가, 同講道師의 決心은 非常한 바가 있다한다

基督教講座

希望이되시는聖靈

에밀 부론너 박사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하나이다. 그 이유로는 저 페테코스테의 사실을 생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장 3절) 하였

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할 것이다. 그것은 바울에 의하면 성령으로 인함이라 하였다. 왜 성령으로 인

하여서만이 그리스도를 주라 할수 있는가? 왜 제3자인 성령이 주를 아는 데 필요한가? 우리는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제3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둘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믿게 된다. 이것을 나는 먼저 말했다. 바울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 된다고 성경에 기

구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들이 늘래는 점 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노한 하나님께 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원시적인 종교의 의식이라 한다. 왜 피흘린 십자가가 필요하며 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본분일 터인데 직접 용서하지 않으시고 피의 대속을 구하셨는가 하고 프랑스의 어구 철학자는 말했다. 오컨데 십자가는 낙심의 도요, 인류 도덕의 지욕이라 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일본인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를 들은 일이 있다. 곧, 일본인은 죄의 관념이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인만이 아닌 것이다. 미국이나 스위스인도

그렇다. 이것은 전 인류의 특징이다. 이것이 복음을 가리우고 그리스도를 믿는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우리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각성을 주시는 것이 곧 성령의 힘이 다. 성령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나는 나의 인생의 대부분을 철학사의 연구에 허비하였으나, 그 많은 역사중 인간이 자기 죄인임을 생각하는 역사 없었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실력 이상의 아름다운 환상의 자기를 그리고 바라보는 심리가 인간의 본성이다. 성령은 먼저 그 환상의 아름다운 빛을 없앤다.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성령의 역사의 물결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

南美的「新教活動禁止令」

美國 N C C 抗議聲明

南美洲 콜롬비아 政府는 자국민, 가를全國의 四分의三을 차지하는十八農村地帶의 무로테스탄트活動을 禁止하여 同地의 무로테스탄트 同盟은 政府의 不當한 命令에서 벗어나려고 各方面에 書信을 보내어 祈禱를求하였다. 이에 對하여 美國教會協議會(NCC)는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콜롬비아 政府는 一九四八年에 制定된 美洲同盟憲章에 違反되며, 同國도 參加해 있는 世界人權宣言의 精神에도 違反된 行爲이다. 世界教會協議會(WCC)中央委員會가 一九四九年의 聲明에 「信敎의 自由는 모든 自由의 基本條件이며, 保障이며 教會가 하나님을 傳하는 것은 나날의 뜻을 傳하는 것은權利義務이다」라 함과 같이 國家는 信敎의 自由에 關하여는 有力한 少數이든지 모든 그루프를 保護하여야 할 것이다. 人間은 他人의 權利를 존중할 責任을 가지고 同情있는 考慮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콜롬비아 政府의 法令에 依하여 困難한 立場에 놓여진 同盟民에 對하여 우리는 信敎自由의 原則에 의하여 위로를希冀과 確信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美國民에게 알리고 그들이 迫害의 가운데서 희생과 內難을 가지고 하나님께 忠誠을 지킬 것을 알며 自由世界의 國民들이 團結과 協力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바라는 바이다. (뉴욕發 E P S : 基通)

川崎教會公同議會

재일 대한기독교 川崎교회 금년도 정기 공동의회는 지난三月七日에배후 동교회 교역자배기환강도사의 사회로 개최되어 작년도 결산보고(결산액三四八·七六〇圓) 및 금년도

신다. 먼저가 되면, 이 둘째는 쉬운 일이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면, 그리스도가 구주로서의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약에, 사람이 처음으로, 예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기록이 있다. (마태六章)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엘리아, 에레미야 : 선지자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 하였다. 그 때에 그리스도의 역사상 큰 일이 일어났다. 「시몬아, 이것은 네가 아바지께서 알게 하심이라 하였다. 세례는,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바니, 힘을 주신다. 곧 우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일시(同一視)하게 하는 힘

을 주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아니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는 나를 위함이 라는 것을 알면 십자가와 내가 동일시됨을 알게 된다. 그러한 신앙에 이르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을 말했으나, 그리스도가 죄를 구속하심을 경험할 때 이 이상 큰 기쁨이 없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하는 말씀을 듣고 아무 두려움도 없는 기쁨을 느끼는가? 이 경험으로써만이 우리의 심중의 실망 낙담은 없어진다.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심중에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계속)

(二面六段에서 계속)

福音新聞編輯方針에關한

「피서傳의 志로」를 읽고

우리가 아니다. 肉身으로 우리는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威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그들에게 利用當할 일은 없는 것이다.

다시 博士는 「本紙讀者가 共産主義에 攻撃하고 民主主義을 옹호하는가 하지마는 資金을 提供하는 本紙의 本意에 援助하는 目的이 民主主義을 上昇시킬 目的이기 때문이다」 하였으나, 그렇다면 完全히 金關係로 「福音新聞」이라는 名義를 팔아먹는 일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資本主義는 政治的 制度가 아니고 단지 商業이나 經濟的 方策이라고 하는 것은 東洋人인 나의 見解로서는 도저히 理解할 수 없다.

오늘날 共産主義란 말이 왜

예산편성액(三二五·五六〇圓)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금년도 사무할 집사로 다음 세씨가 선정되었다 한다.

男집사 俞基植氏, 金奉祚氏, 女집사 權俊老氏, 李錦容氏, 金順南氏,

한국 요리법

국 수 장 국 (오 면)

재료 (여섯그릇)

우육	반근	마늘	한쪽
국수	열두손	호추가루	조금
간장	반종지	깨소금	한큰사시
파	두뿌리	기름	반차사시
계란	한개		

1. 먼저 맑은장국을 끓여놓고 (맑은장국끓이는 법을참고)
2. 고기를 가늘게 채쳐서 여러가지 약념을 해서 볶아놓고
3. 계란 항백미를 각각 얇게 부쳐서 채쳐놓고
4. 국수를 한번 해워서 대접에 담고 위에 볶은 고기를 얹어 계란 약념을 뿌리고
5. 상에 놓을때에 펄펄끓는 국을 부어서 놓는다 (비 고)
1. 장국에다가 계란을 풀어넣어서 국수에 부어도 좋고
2. 장국위에 얹는 고기약념은 설탕적을 이겨서 없기도 하느니라

읽어났으며 自由國家가 共産主義에 對한 恐怖를 외치는가? 資本主義는 商業이나 經濟的 方策이라고 하면 今日 國家나 政治가 經濟的 方策을 依하고, 政治가 成立되며 國家 形成發令을 있는가? 商業, 經濟, 모든 方策은 政治的 理念原理에 따라 產出되는것이 라는 것을 누구가否認할 수 있을까? 今日 우리 教會는 資本主義라는 것을 어떤 때는 共産主義보다 더 두려워 할 때가 있다. 돈은 權力을 가진다. 權力은 正義를 억누를 때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는 資本家 正義 所有한 商業家, 經濟家는 墮落하며 放蕩하며 모든 사람의 人權을 蹂躪하고 自由를 奪탈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특히 東洋사람 머리속에는 資本主義를 여간 무서워하지 않고, 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나는 理論의이나 學文的으로 피서 博士에게 반박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博士가 우리의 處地와 基督敎對 共産主義의 戰鬪方法이 相違한것을 指摘하는 동시에 우리의 根本信念을 理解하고今後 本紙의 發展에 一層 協力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한글 교실

(제 41 시) 張 曉

세째 뒷가지(接尾辭)가 붙어서
임자씨가 된 것
앞에 붙은 것을 „앞가지“
라 함과 같이 뒤에 붙어서
그 말의 뜻이나 씨(品詞)가
달라지게 하는 것을 „뒷가지“
라 합니다.

따로 쓰이는 말에 뒷가지가
붙어서 임자씨가 된 것은 다
음과 같은 요령으로 구별하여
적습니다.

／ 따로 쓰이는 말에
ㄱ. 당소리(子音)로 시작
된 가지가 붙은 것.
ㄴ. 율소리(母音) „이, 음“
이 붙은 것.
은 그 본말의 받침 그대로
적음.

2. 따로 쓰이는 말에
율소리(“이, 음” 이외의)로
시작된 가지가 붙은 것
은 본말의 받침을 다음
율소리의 첫소리로 적음.

3. 당소리나 „이 음“이 붙
었다고 볼 만한 것이라도
ㄱ. 아주 단 말이 된 것.
ㄴ. 따로 쓰이지 않는 부
분에 붙은 것

ㄷ. 말소리가 달라진 것
은 소리대로 적음.
이제 아래에 따로 쓰이는
부분의 본 받침을 밝히어 적
을 것과 그러지 아니할 것을
차례대로 예를 들어 보이겠습
니다.

(／) 당소리 가지가 붙은 것
1. 끝장 (一장)
부엌데기 (一데기)
뽕밭 (一밭)
뽕쟁이 (一쟁이)
임사귀 (一사귀)
(임자씨에 당소리 가지
가 붙은 것)

2. 낚시 (一시)
늪정미 (一정미) —
뜯개질 (一개질)
뎡개 (一개)
(풀이씨 줄기에 당소리
가 붙은 것)

(2) „이“가 붙은 것
3. 곰배밭이, 네눈이
삼밭이, 절록밭이
애꾸눈이, 육손이
(임자씨에 „이“가 붙
은 것)

4. 길이(長), 깊이(深)
높이(高), 다듬이
땀받이, 맞이
벼룩이, 살림살이
손잡이, 쇠불이
풀이, 해물이

(풀이씨 줄기에 „이“
가 붙은 것)
5. 건건이, 배불퍽이
균남작이
(„하다“가 붙어서 쓰
이는 말에 „하다“대
신 „이“가 붙은 것)

(3) „음“이 붙은 것
6. 걸음(步), 뉘음(束)
말음(信仰), 얼음(氷)
엮음(編), 율음(輻)
웃음(笑), 졸음(唾)
뽕값음(報勞)
(풀이씨 줄기에 „음“
이 붙은 것)

따로 쓰이는 말에 위와 같은
„당소리, 이, 음“이 붙어서
임자씨(體言)가 된 것은 그
본말의 받침을 밝히어 적습니
다. 위의 „이“는
네눈이~가 높이~가
깊이~를 건건이~를
과 같이 토가 아남을 이해하
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흑인 문제와 인종차
별문제 가장 시끄럽고 중대
한 문제인바 이 인종차별 반
대운동을 목격한 전미국 유색
인종상협회 주최의 자유당성
회의에 참석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연설하기를 인종차별
대우와 격리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 차차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
다.

아大統領의演說

人種差別反對運動과

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일본에 와서 재류동
포 여러분의 愛護를 감사하
는 바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세속단이 해외에
나가는 세속에 대한 이해
없을과 재정 문제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번 제일전에
는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으로
로 득승했으나, 다음 번에
도 더욱 두터운 성원과 격
려를 바라는 바이다.

在日韓國 Y에서 歡迎午餐會

選手 蹴球

지난 十日 在日韓國基督教青年
會에서는 世界蹴球選手權大會極
東選拔에서 五對一로 日本팀에
決勝한 來日中の 韓國選手團을
歡迎激勵하기 爲하여 通例와이
스맨스 클럽에 請하여 午餐會
를 開하였다. 그때 선수들은 정
한 시간 외의 外출을 금지하
고 團會중이 있었으므로 단
원을 대표하여 鄭商團團長과
李裕泰監督 두분만 參席하였는
데, Y M O A理事 韓現相氏의
歡迎辭의 다음에 團長 鄭商團

韓國孤兒兒

그림성경책

한글 최대한으로 행사할터이다
이 공한은 이미 군대와 용비
아 지구에서 행사하고 있다.
日基督教教育委員會에서는 昨
年 크리스마스 현금을 韓國의
고아들에게 보내기로하여 二月
末까지 一八・三五〇圓에 모
였는데 이 현금이 그리스도新
舊社發行 그림책 성경(한국어
판정부)를 구입하여 보내기로
하였다고 한다.

詩 愛國者

姜 舜

천만가지 말중에
類落한 말 하나
【우리 同胞】
알집 뒹집 다 아는 말이다만
時勢가 떠러진 오늘날
한문의 信仰도 스칠 양이면서
말시작한 아이같이 新奇하고
뇌이면 눈물이 출렁이는 말
【동포】는 흘린 땀이 많았고
우리가 【나】를 위해 쫓기고
비탈기 까만새가 되어 해메도...
哀痛의 무리, 노래의 風目은
上 上의 새벽별같이 民族의 아픔
한결같이 어리석은 우리들이구나
그러므로 나라의 怪物이 무섭더라.

紀行文

그리운 祖國江山

(3)

이제는 교회 형편을 좀 이
아기하여야 하겠다.
교회는 이 사변동안에, 대개
이북에서 넘어온 포우들만에
포우가 없고 세 교회가 생겼
다고 하겠지만, 대체로 보아서
신자가 늘었고 최근에는 확실히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이
민심이 기록으로 돌아오고 있
는 까닭이라고 할수있다. 첫째
오랜 전전파 피난에 시달린
민중은 신앙외에는 소망과 위안
을 얻을 길이 없는 까닭이라
는 것을 보이고, 다음에는 이
미 뿌려진 복음의 씨가 이제
음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라고 할수있다.

「아무래도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고 예수를 믿어야 하겠는데」하고 진정한 소회를 말하는 지식층 사람들이 적지않다. 고 하는 말을 나는 어떤 절은 문인에게 들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행이요 고마운 현상은 이번 사범통에 파피된 교회와 퇴락한 교회를 전부 미八군단에서 재료를 대주어서 신축 혹은 수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신실하는 교회도 지어 준다는 것이다. 의정부 방면에는 이미 훌륭한 교회들이 신축되었다.

다음에 반가운 일은 일선에 있는 군인들이 종군목사의 지도를 받아 많이 신앙으로 온다는 것이다.

일선에 있는 국군의 최고지휘관인(사단장 연대장)부터 그들이 본시 교인은 아니면서 교회에 잘 출석할뿐 아니라 진중교회(陣中敎會)를 짓는데 크게 열심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단장은 간부나 부하들의 반대를 물리쳐 가면서 예배당을 기어히 굉장히 높은 고지에 건축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는「교회는 높이 바라보는 데 있어야지 바닥에 있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공병대를 시켜서 아주 곤란하고 위험한 공사를 강제로 시키다싶이 해서 예배당건축을 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지어 놓고 온 군대장병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현당식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군인들이 심령의 위안과 구원의 희망을 간구하는 증거라고도 할수있지만 특히 지도자측으로 보아서는 우리의 전쟁은 정의의 하나임의 명령을 받아서 싸우는「정의의 싸움」이니 장관이나 병졸이나 교회에서 항상 하나임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두가지 큰 문제는 지도자가 부족한 것과 이미 있는 지도자 사이에 협동정신과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선 귀중한 군목사업에 종사할 인물이 부족한 것이다.

죽음을 앞에 놓고 싸우는 장병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군목들은 경험도 있어야 하겠고 열도 있어야 할터인데 그러한 인물이 많지 못한것이 유감이요 그리고 사범 이후에 교회가 훨씬 늘어서 교역자를 많이 요구하였던 이 요구에 응하여 나설 자격있는 인물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농촌에 교역자가 부족한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때에 온 교회가 단결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할터인데 교파문제 교리문제(공이단 정통 문제등으로) 서로 갈리고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가장 유감된 일이다.

이번에 장로교에서는 각 노회에서 소위「자유주위자」라 해서 여러 사람을 처분하고 따라서 한편에서는 따로 총회를 조직할 모양이니 결국 총회가 갈리게 될것이요 거기에 따라서 상서롭지 못한 분규가 생길것은 삼히 유감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다 한때 과도기의 피치못할 현상에 지나지 못하고 조국은 결국 기독교로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교회가 제일 먼저 재건되고 부흥되고 교회에 가보아야 싸 싸하고 열이 넘치는 기세를 찾아 볼수 있다는 것이다. (끝)

(豫告)

劇復活 次號부터 連 載

그동안 연재한「새벽종」은 지난호 까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분망중에 쓰노라니 처음에 생각했던대로 되지않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리진것이되었으나 끝끝내 애독해 주신것은 감사 합니다. 다음에는 본국에서 크리쓰찬 극작가로 유명한 朱岩山씨의 종교극「부활」을 계속해신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많은 감격과 만족을 줄것이라 믿으며 여전 애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福晉新聞社 編輯部白)

輸出入業

三剛物産株式會社

代表取締役 金 炯 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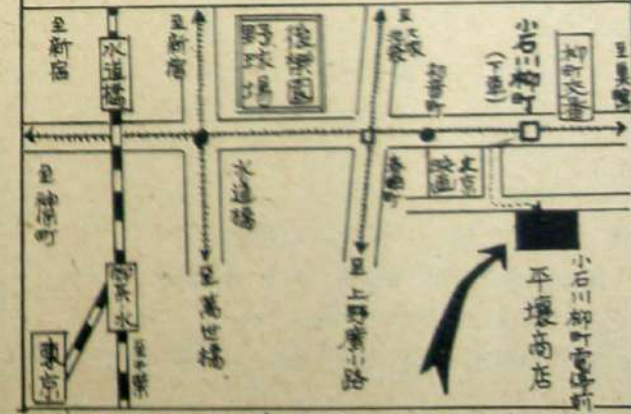
東京都港區芝西久保巴町三番地

電 略 シバミツダイヤ

電話 (43) 7 5 4 3
6 8 5 3
5 2 0 0



朝鮮布木



平壤商店

東京都文京區丸山福山町四番地

電話・小石川(92) 0187・4879